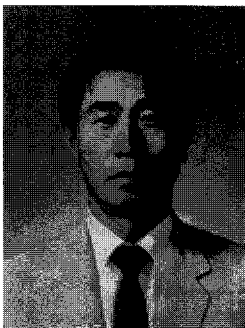


유관단체를 찾아서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

부직포산업의 국제화, 기술력 제고에 역점

응용분야 확대연구 · 부직포 이해 홍보에 힘써



구평길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주변에 친근한 소재

최근 들어 우리 산업과 생활주변에 부직포가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으나 아직도 부직포의 용도와 특성, 기능이 실수요자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부직포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의 창출이 미약한 실정이다.

부직포는 천연, 화학, 유리, 금속 등 각종 섬유를 상호간의 특성에 따라 엉키게 하여 시트모양의 웹(Web)를 형성, 이를 기계적 또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결합시켜 만든 평면 구조를 말한다.

우리주변에 친근하게 자리잡고 있는 부직포는 최근 응용분야 확대연구와 함께 첨단 다기능성 제품이 선보여 그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다.

부직포가 포장용으로 쓰이는 것은 주로 일회용에 적용되는 서멀본드와 스펀본드로 용도에 따른 원단설계가 쉬운 장점을 갖고 있다.

여러 가지 장점과 용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부직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 나라 부직포업계는 6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의 기초적인 생산법을 모방한 생산기업이 등장, 삼지 및 니들펀칭라인을 설치했는데 이때의 시설은 대부분 면방에서 사용되던 구식의 카드기 등을 개조하여 부직포를 생산했으나 시장의 미성숙으로 많은 기업이 도산했다.

그러나 70년대 초반이후 40~50여 개의 생산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삼지 및 패딩을 본격 생산하면서 국내 부직포산업의 실질적인 생산 초기단계를 맞이했다.

이후 80년대 들어 각종 산업의 발전과 함께 부직포의 수요가 증가하고 용도가 다양해 지면서 전체적인 부직포 시장이 크게 확대됐다.

이같은 시장확대로 부직포산업은 하나의 산업으로 면모를 갖추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으로 마침내 업계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키로 합의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조합설립 발기인회를 구성하게 됐다.

발기인회는 설립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합구성에 필요한 요건을 준비, 1981년 5월6일 18개사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이종학(현 한국물산(주) 회장) 이사장을 정점으로 정식 출범했다.

부직포조합은 공동사업, 지도사업, 조사사업, 수출진흥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조합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 위해 사업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였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시도, 사업의 극대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조합의 노력에도 설립 초창기부터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에는 사업환경이 어려웠으며, 8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활동에 착수, 조합원사의 소요원자재인 각종 화섬화이버를 체계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구입을 원활히 하고 조합원의 자금사정을 덜어주는데 노력했다.

조합은 81년 부직포기계에 사용되고 있는 부품 공급을 시작으로 비스코스레이온 S/F를 원진레이온(주)의 공급증단에 따라 제품을 공동 수입하여 공급함으로써 본격 시작됐다.

현재 공동구매 품목은 원자재로 화섬화이버 등을 외국과 국내에서 공동 구입하고 부자재로 칩착체를 국내에서 구매하고 니들, 웨틀, 노즐 등 부품도 스피아파트로 수입하여 조합원사에 공급하고 있다.

조합원사 생산품 판로확대 모색

조합은 조합원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카페트와 헬트, 농업용 부직포를 품목지정을 받았으나 그 해에는 실적을 기록하지 못했고 다음해 카페트와 토목용 헬타

MAT로 명칭을 정립, 상공부로부터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받아 본격적으로 납품하는 실적을 올리기 시작했다.

또한 실적증가를 위해 정부의 주요 기관과 전국 각 시.군 등 수요기관에 대해 수많은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관급유도 등의 노력을 기울여 연차적으로 시장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조합은 영세한 조합원사들의 자금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82년부터 기협중앙회로부터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을 배정받아 조합원 소요원자재인 국내외의 공동구매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조합의 출자금 등 자체 조

성자금으로 조합원들의 수취어음할인 등 운영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86년 이후에는 금리가 저렴한 중소기업 공제사업자금을 확보, 지원하여 조합원업체의 기업운영에 도움을 주었고 조합의 자체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어음할인 및 소액자금대출 등 자금운영의 활성화를 기했다.

이와 함께 부직포제조업체들에 대해 기업인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최근의 급변하는 국제정세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경제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신소재 소개 및 품질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대외 경쟁력 제

[표 1] 부직포의 용도별 생산현황

(단위 : 1000M/T)

용도별	구분	생산량(M/T)		구성비(%)
		92	93	
의류용	의류용	30,566	38,782	30.24
위생용	커버스톡	4,015	10,117	7.89
	메디칼	382	608	0.47
	1회용	849	1,935	1.51
	소계	5,246	12,660	(9.87)
생활관련용	인조수세미	684	476	0.37
	행주용	—	1,203	0.94
	침구용	6,461	7,751	6.04
	커버류용	2,500	3,266	2.55
	Bag용	936	893	0.70
소계	10,581	13,589	(10.60)	
자수용	자수용	438	545	0.43
인테리어용(파이텍스)	인테리어용(파이텍스)	712	2,117	1.65
산업자재용	토목용	5,901	6,602	5.15
	농업용	3,612	9,844	7.68
	헬타용	6,357	7,252	5.65
	전선피복용	310	550	0.43
	와이퍼	484	532	0.41
	자동차내장재용	7,060	9,941	7.75
	공업용	1,856	2,590	2.03
	연마재	363	1,683	1.31
	기타산업자재용	143	206	0.16
소계	26,086	39,200	(30.57)	
피혁용	신발기포용	3,685	5,441	4.24
	합성피혁 Backing Cloth	1,668	5,199	4.05
	인조피혁	1,811	4,271	3.34
	소계	7,164	14,911	(11.63)
완구용	완구용	201	302	0.23
기타	기타	6,561	6,130	4.78
합계	합계	87,555	128,236	100

고를 기하기 위해 83년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외견학 및 기술세미나, 전시 등을 개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생산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발간사업으로는 부직포정보지를 계간에서 월간 회보로 변경하는 등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발간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이같은 사업과 조합원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81년 대기업의 부직포업 진출방지를 위한 사업조정문제 등 직접적인 건의활동을 시작으로 82년 이후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성을 띄기 시작했으며, 간접적인 보조활동 등도 병행하여 건의활동을 입체적으로 전개했다.

업계발전 건의활동

조합설립 이후 10년간에 걸쳐 업계를 위한 건의활동 건수는 연평균 13~14건 정도로 모두 1백40~1백50건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동안 여타 산업에 비해 국내 생산기업의 역사가 짧아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정부에 지원받아야 할 부분과 문제점이 산재해 건의활동을 중소기업을 위주한 것이 중점을 이루었다.

그 주요내용은 대기업의 부직포업 진출방지, 중소기업 우선업종지정, 수입원료 수입관세 인하, 협동화사업 문제점, 국산자재사용, 부직포 수입 자유화품목 제외, 의장 및 권리범위 무효소송, 할당관세 적용, 조달물자 지정요청, 병역특례기업 지정건의 등이다.

조합은 올해 기본 운영목표와 세 부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우선 정책개

[표 2] 부직포 판매현황

(단위: 백만원)

제조방식	구분	92년			93년			전년 대비율
		내수매출	수출매출	총매출액	내수매출	수출매출	총매출액	
Chemical Bonding	침적법	(2,811)	(2,480)	(5,291)	(7,286)	(1,286)	(8,572)	168.49
		18,267	11,024	29,291	33,974	15,379	49,353	
	Spray법	(6,555)	(8,308)	(14,863)	(11,019)	(11,573)	(22,592)	124.15
	소 계	(9,366)	(10,788)	(20,154)	(18,305)	(12,859)	(31,164)	[135.10]
		54,512	64,118	118,630	82,997	77,270	160,267	
Thermal Bonding		(6,086)	(-)	(6,086)	(6,733)	(-)	(6,733)	168.49
		21,354	12,332	33,686	35,978	20,780	56,758	
Needle Punching		(19,792)	(-)	(19,792)	(19,885)	(5,950)	(25,835)	108.03
		95,326	15,675	111,001	90,168	29,751	119,919	
Stitch Bonding		(255)	(157)	(412)	(172)	(-)	(172)	80.62
		665	997	1,662	1,193	147	1,340	
Spun Bonding	폴리프로필렌	(19,026)	(8,154)	(27,180)	(21,247)	(10,232)	(31,479)	115.82
		19,026	8,154	27,180	21,247	10,232	31,479	
	폴리에스터	(9,485)	(2,371)	(11,856)	(8,237)	(3,123)	(11,360)	95.81
		9,485	2,371	11,856	8,237	3,123	11,360	
	소 계	(28,511)	(10,525)	(39,036)	(29,484)	(13,355)	(42,839)	[109.74]
		28,511	10,525	39,036	29,484	13,355	42,839	
기 타		(3,885)	(1,103)	(4,988)	(1,686)	(475)	(2,161)	43.32
		3,885	1,103	4,988	1,686	475	2,161	
합 계		(67,895)	(22,573)	(90,468)	(76,265)	(32,639)	(108,904)	[124.04]
		204,253	104,750	309,003	241,506	141,778	383,284	

발사업 강화추진, 중기지원제도 적극 활용, 부직포산업의 첨단 산업업종 지정추진 등 업계 경쟁력제고 및 애로타개를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기본실태를 조사하여 조합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함께 경영 및 기술지도사업, 연수교육, 산업동향조사, 96년 개최예정인 부직포 제품 및 관련기기전 준비 등 기획, 조사, 정보화에 힘쓰고 있다.

해외시장개척, 수출진흥, 국제교류를 위해 일본에서 열린 제2회 국제부직포산업 종합전과 중국에서 열린 제1회 중국 국제부직포 및 섬유기계전시회, 제2회 아세아 부직포산업전에 출품 및 참관단을 파견했고 ANIC(아세아부직포협회)에 참석하는 등 해외 부직포관련 업체 및 매스컴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조직 및 조합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서는 비조합원의 가입추진, 품종별 분과위원회 활성화, 가칭 부직포산업협의회 결성, 산업시찰 및 단합대회, 조합업무 전산화 추진 등을 실천하고 있다.

조합이 펼치고 있는 공동구매사업은 올해 원부자재 공동 구매량목표 23억원의 달성과 함께 Viscose Rayon S/F 할당관세를 4%이하로 낮추며, 저가구매 및 구입선 경쟁을 유도하고 단체 수의계약량을 27억원으로 잡고 있다.

발간 및 홍보사업은 부직포뉴스를 매월 발행하고 각종 조사보고서, 부직포 및 관련업계 디렉토리, 제2회 국제 부직포제품 및 관련기기전시회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 지난해 부직포산업의 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한 부직포업계 실태조사 제6권을 발행, 업체들이 이를 참고로 경영 및 생산전략 등에 응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학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작업에 착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내 부직포시장 외형이 4천억원대에 근접함에 따라 기업의 합리적인 설비 및 연구투자 등을 유도해 부직포업계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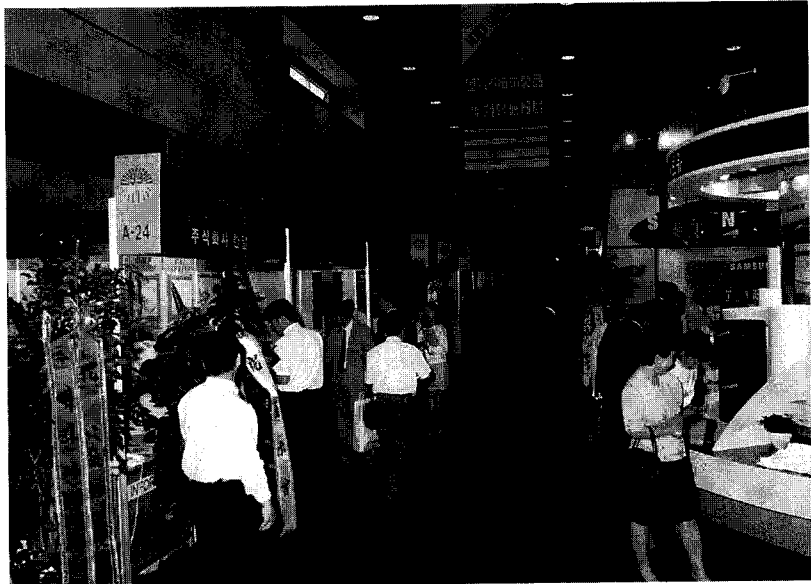
산학협동 컨퍼런스 구성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산학간의 협동체제가 활성화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에서 품질관리체계 개선, 마케팅분야 확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기업과 학계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부직포산업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합은 부직포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현재 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부직포 롤 생산업체와 기계, 원료, 가공업체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전무해 기술개발의 한계에 있어 산학협동회의를 통해 공동개발을 통한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조합은 컨퍼런스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여 조금 더 발전된 산학협동체제(안)을 확정, 제2차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등 업계의 발전 속도를 높여나가는 행사로 만들 계획이다.

국내 부직포 생산시설 보유업체는 1백46개사로 추정되고 있으며, 조합에 가입된 수는 63개사로 가입율이 43.15로 조직화율이 감소되고 있지만 조합가입이 어려운 5개 대기업과 기업규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을 감안하면 가입율은 69.5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열렸던 제1회 부직포제품 및 관련기전

조합원이 92년보다 8.27% 줄어든 것은 지난 3년간 국내 산업 경기 침체에 따른 제조분야의 경영불안정으로 조합원에게도 영향을 미쳐 조합원사 가운데 제품의 생산성과 운영 등 효율화 부족업체들의 판매 부진으로 도산업체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93년 부직포 총수요와 공급은 중량 13만5백88M/T, 금액 4천6백 83억원의 외형을 기록하고 있는데 수요분포는 내수가 3천2백66억원으로 전체 수요의 69.33%를 보이는 등 큰 발전을 보였다.

‘첨단섬유’, ‘미래섬유’로 불리우는 부직포는 의류산업의 영향과 비교적 기술습득이 쉬워 토목, 자동차내장재, 메디칼, 일회용 등 시장대중화를 통해 성장해 왔다.

부직포산업은 대단히 각광을 받고 있는 육성업종으로 발돋움했으며, 국내 섬유산업의 성장둔화 속에서도 생산, 매출 등이 크게 증가해 성장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직포산업은 현재보다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꾸준히 부직포업계의 발전을 주도하여 이제 성장궤도에 올려 놓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부직포조합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또다른 전략을 수립, 실행에 옮기고 있다.

노후시설 교체, 공동보조시설 조성을 유도하고 원가절감 및 품질의 고급화를 위한 기술지원, 선진국의 기술과 경영정보 수집, 기능인력 양성, 새로운 기술개발, 산학협동 공동연구기관과 기술훈련소, 전문교육기관의 설치 등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착실히 풀어가고 있다.

튼튼한 기반위에 웅장한 건물을 짓기 위한 정성으로.

오선진 기자